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 정 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미 숙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중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규명하려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경인지역 유치원의 만 4세 내지 5세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총 274명이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11개 문항, 양육태도는 48개 문항,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24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검증, one-way ANOVA와 Scheffé 검증, 피어슨 상관분석,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보면, 애정적 내지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았으며,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았다. 이때,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자율적 태도를 보이며, 유아의 성별이 여아보다는 남아일 때 더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인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도력과 유능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반면 과민성과 불안정성은 낮은 상태를 보였다. 이때, 아버지가 40세 이상인 경우 유아의 불안정성이 적게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별로 보면, 만 4세보다 만 5세인 유아가 유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자율적, 통제적, 애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다. 아버지의 자율적·통제적·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다. 또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 셋째,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한 가운데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보다는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자율적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은 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한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